경북지역 거주 기혼 미혼자의 혼례문화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이 향 숙(동부산대 전임강사) · 주 영 애(성신여대 부교수)

혼례문화는 각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혼례도 여러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전통혼례절차에 의거해 경북지역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문화의 인식 차이를 통하여 현재 및 향후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 미혼자를 중심으로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경북지역 전역에 설문지를 총 430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03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혼과정의 중매주체와 혼례준비주체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매주체의 경우 미혼자들은 기혼자에 비해 결혼정보회사를 선호하였고 혼례준비주체의 경우 웨딩플래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납채과정의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자, 택일단자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인식차이도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들의 경우 납채의 과정을 모른다와 주고받지 않겠다가 대부분이어서 납채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폐과정의 예단, 예물을 주고받는 여부에 대해서는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일수록 예물, 예단을 주고받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례과정의 혼례장소, 혼례식장 위치, 혼례형태, 혼례시간, 혼례소요시간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혼례장소, 혼례형태, 혼례시간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화된 이벤트예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과정의 폐백의식 여부, 폐백시기와 장소, 폐백대상, 폐백음식, 폐백음식준비, 폐백 후 안부전화, 폐백의 의미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폐백의식 여부, 폐백시기와 장소, 폐백대상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혼례절차에 있어서 납채의 과정과 폐백의 과정은 그 의미가 생략되거나 축소 될 경향이 증가될 것이며, 혼례준비에 있어 웨딩플래너,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혼인, 나만의 개성화되고 고급화된 이벤트예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납채와 폐백의 절차는전통혼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혼인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가족 구성을 위한 필수과정이므로 기혼자 및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혼례준비에 있어서 영향력이 증대될 웨딩플래너와 결혼정보회사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